

2 뉴스

학생식당 인력부족 코너 수 축소 운영

장비슬 기자 eva6155@khu.ac.kr

【서울】우리학교 학생식당이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재 서울캠퍼스(서울캠) 청운관 학생식당에는 8시간 근무 기준 16명의 조리원이 근무하고 있다.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23명이 근무했던 것에 비해 7명의 업무 공백이 채워지지 못한 상황이다.

생활협동조합(생협) 측에 따르면, 인력 부족의 가장 큰 원인은 신입 조리원들의 퇴사다. 단체급식 경험이 없는 신입 조리원들이 적응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입사 직후 퇴사를 결심하는 것이다. 청운관 학생식당에서 근무하는 최은정 영양사는 “조리원들이 단체 급식 업무를 쉽게 생각하고 취업했다가 퇴사하는 경우가 빈번하다”며 “단체 급식의 숙련도는 업무를 진행해 봐야 알 수 있어 면접만으로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최 영양사는 “퇴사원인은 결국 고된 노동에 비해 적은 급여라고 생각한다”면서도 “그러나 단체급식 특성상 급여를 많이 줄 수 없는 구조다”고 덧붙였다.

반복적인 인력 교체는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문제로 이어졌다. 다양한 음식 제공을 위해 선 식당의 코너 수를 확대해야 하지만, 우리학교 학생식당은 일부 코너만 운영하고 있다. 청운관 학생식당은 전체 6개 중 3개 코너를, 푸른솔 학생식당은 전체 4개 중 3개 코너를 운영 중이다. 최 영양사는 “여러 가

지 메뉴 시도를 하고 있지만 만들 손이 부족해 기본만 제공하기도 빠듯한 실정”이라며 “내부 사정을 모르는 학생들이 코로나 전보다 메뉴가 못하다는 의견을 많이 보여 안타깝다”고 말했다.

가장 큰 문제는 조리원 중에서도 실질적인 조리를 담당하는 조리사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이에 영양사가 조리 보조 업무를 돕고 있지만, 여전히 각 조리원이 부담하는 노동 강도는 높은 편이다. 지난 2학기에는 학생식당 근로장학생을 선발하기도 했다. 그러나 학생 근로의 특성상 연속근무가 쉽지 않고, 학생 수업 일수에 따라 근무가 진행되기에 업무 공백을 제대로 채우기는 쉽지 않은 실정이다.

학생식당 인력난은 대학가 전반에서 일어나고 있다. 서울대학교 302동 학생식당은 지난해 6월 조리 인력 부족으로 휴점했다. 결국 인력난을 해결하지 못하고, 자율 배식 시스템으로 전환해 8개월 만에 재개장했다. 이에 대해 생협 김민화 사무국장은 “코로나19로 외국인 노동자 입국이 제한되면서 일반음식점에서 구인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며 “연쇄적으로 학생식당 구인 문제로 이어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우리학교 교직원식당은 지난 2학기부터 자율 배식을 진행하고 있다. 다만 생협 김 사무국장은 “학생들을 대상으로는 자율 배식 시스템을 도입하지 않을 계획이다”고 전했다.



국제캠퍼스 외국어대학 주변에서 신원 불명의 남성(화살표)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사진=정예은 기자)

신원불명 외부인 주의하세요

정예은 기자 yegold@khu.ac.kr

【국제】최근 신원이 불분명한 남성이 캠퍼스를 활보하고 있다. 해당 남성은 주로 외국어대학 주변에서 스페인어학과 학생들에게 접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남성이 최초로 목격된 것은 지난 3일 오후 8시경이다. 당시 남성은 스페인어학과 학생회실에 들어와 한 교수를 언급하며 친분을

드러냈다. 이어 이틀 후인 지난 5일 오후 8시경 외국어대학 남자휴게실에 다시 나타났다. 남성은 ‘협성대학교 신학과를 졸업한 25세’라고 자신을 소개하며 휴게실에 있던 학생의 연락처와 이름을 물었다.

다음날 남성은 외국어대학 3층 강의실에서 또다시 목격됐다. 최초 목격 당시 언급했던 교수의 수업이었다. 그러나 해당 교수는 “친분이 전혀 없는 사이이며, 지난해에도 비슷한 상황이 있어 좋게 돌려보냈던 기억이 있다”고 밝혔다.

학생들의 진술에 따르면 남성은 검은색 노스페이스 패딩을 입은 채 파란색 백팩을 메고 있다. 지난 12일에도 외국어대학과 멀리 떨어진 중앙도서관 앞에서 발견됐다.

남성과 세 차례 마주친 한 학생은 “도대체 학과 학생회실과 남자

휴게실의 위치는 어떻게 파악했는지, 교수님의 성함은 어떻게 알았는지도 모르겠다”며 “언제 어떤 위험이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두려웠다”고 말했다. 외국어대학 앞 벤치에서 남성을 목격한 또 다른 학생은 “그 사람의 시선이 계속 느껴져 불편했고 자리를 피했다”며 “하루빨리 확실한 조치가 취해졌으면 한다”고 전했다.

스페인어학과 학생회장은 최초 목격자 신고 이후 학과 단체 채팅방에 주의를 요하는 공지를 올렸다. 목격한 학생들 역시 몇 차례에 걸쳐 학내 보안업체인 KT 텔레캅 측에 신고했으나 5분 이내 출동했던 것은 단 한 번뿐이었다. KT 텔레캅 측은 “신고를 받고 출동하면 해당 남성이 사라져 신원 파악이 어려운 상태다”고 답했다.



[공통] 2023학년도 1학기 신·편입생 / 재입학생 / 복학생 / 재학생 우정장학(가계곤란) 신청 안내

신청기간 2023. 03. 01 (수) ~ 2023. 03. 31(금) (신청기간 연장 절대 불가)

- 신청자격**
- 1. 2023-1학기 정규학기 재학 중인 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복학생/재학생 (교내장학 미신청자)
 - 2. 2023-1학기 국가장학금(1차, 2차) 신청자 중 소득분위가 0~8구간 보유자
 - 3. 2023-1학기 복학등필생은 이전 등록학기 우정장학금 미수혜자

- 성적기준**
- 1. 직전학기 12학점(의약학계열 15학점) 이상 이수
 - 2. 직전학기 평균평점(원성적) 2.0이상
 - ※ 단, 직전학기가 교환학기, 장기현장실습 등인 경우 9학점 이상 Pass
 - ※ 2023-1학기 신·편입생은 성적기준 적용 제외

신청방법 info21 로그인 ▶ 등록/장학 ▶ 장학신청 ▶ 2023-1학기 우정(가계곤란) 장학금 신청 (신청 후 장학 신청 확인을 조회하여 장학 신청이 완료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할 것)

지급방법 1. 학자금 미대출자 : Info21에 등록된 학생 계좌로 지급

- 2. 공무원학자금 및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자 : 학생지원센터(장학)에서 직접 상환처리
- 3. 한국장학재단 외 기타 대출자는 학생 계좌로 지급(학생이 부모님을 통하여 직접상환)

지급시기 2023년 5월 또는 6월 중 예정
우정장학 지급제외자

- 1. 2023-1학기 장학금 전액 수혜자
- 2. 복학생의 경우 최종등록학기에 우정장학 또는 전액장학을 수혜한 후 휴학한 재(국가)근로, 각종 생활비 및 학업장려금 등 등록금 초과가능장학 제외)
- 3. 2023-1학기 휴학 및 정규학기 초과자(졸업유예자)
- 4. 기타 장학규정 장학금 지급 제한(징계 등)에 해당하는 자

문의전화 1. 서울C 학생지원센터(장학) : 02-961-0045~0046
2. 국제C 학생지원센터(장학) : 031-201-3055~3059